

승객 33% 급증... 서울행 항공기 탑승률 10% 이상 줄어

호남선 KTX 개통 한달

수도권 관광객 유입 늘고
유통·의료 '역류' 아직은 없어
비싼 요금·증차 등 해결 시급

호남과 전국 대도시를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한 호남선 고속철도(KTX)가 개통한 지 한 달이 다가오면서 교통생태계의 재편과 남도 관광 산업의 훈풍 등 생활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KTX 이용객 급증...버스·항공 업계 비상=26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일 호남KTX 개통 이후 23일까지 호남선과 전라선의 1일 이용객은 3만 2772명으로 지난 1월1일부터 4월1일까지 2만5214명보다 33.1%나 증가했다.

아침이나 밤에 일정이 있더라도 당일 출발, 당일 복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반면 고속버스와 비행기 등 다른 교통편 수요는 감소했다. 광주-서울 간 고속버스를 1일 90~125회(편도) 운행 중인 금호고속은 KTX 개통 후 해당 1~1.5명꼴로 승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호고속은 버스운행속도를 기존 최고 100km에서 110km로 높이고, 전 차량에 차선이탈과 차간거리 경보장치 설치 등 안전장비를 강화하는 등 이탈 고객 막기에 집중하고 있다. 금호고속은 심야 시간대 배차 강화를 비롯한 저렴한 운임, 쾌적한 버스좌석, 뛰어난 도심 접근성 등 고속버스의 경쟁



호남·충청권 7개 시·도지사들이 호남선 KTX 연장운행과 국책사업 등에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26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뒀다. 호남·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호남선 KTX 2단계 사업 기본계획 변경(무안공항 경유) 및 조기추진 촉구, 서대전역 경유 호남선 KTX의 연장과 호남선 KTX 직행노선 증편 등 6개 항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우범기 광주 경제부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권선택 대전 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허승욱 충남 정부부지사. <전남도 제공>

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 1~21일 광주-김포(편도) 대항항공 항공기 탑승률도 4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포인트 줄었다. 아시아나항공도 KTX 개통 후 같은 구간 항공기 탑승률이 51.4%로 지난해보다 13.6% 포인트 감소했다.

◇관광, 유통, 의료 분야 변화 조짐=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과의 체감 거리가 단축되면서 1일 이용객 30% 이상 급증 등 수도권 관광객의 호남 유입

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 사이트 등에서도 호남선 KTX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는 등 관광 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흑산도와 홍도 등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전남 서부권의 섬 관광 등 호남권 내 유명 관광상품은 동남 정도로 인기다.

이른바 수도권으로 빨려드는 '빨대효과'를 우려했던 지역 소상공업도 별다른 변동이 없는 모습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최근 소비심리의 위축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봄 정제세일 매출은 전년보다

1%감소하는 데 그쳤으며,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오히려 2.6%나 상승하기도 했다.

환자 역의 유출을 걱정했던 의료계도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대형 병원들과 경쟁하는 전남대 병원은 KTX개통 후에도 사실상 100%의 병실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비싼 요금, 증차, 광주역 문제 등 해결과제도 산적=용산~광주송정간 4만6800원에 이르는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정치권에서

도 오송역 우회 분기로 늘어난 19km구간의 요금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또 늘어난 이용객수로 평일에도 매표사태가 이어지면서 증차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자부진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도 밀린 속제다. 건립 부지 매입 여부 등을 놓고 코레일과 민간 사업예정자, 광주시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착공 시일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고속철 증편·2단계 조속 추진 촉구

호남·충청 7개 시·도지사 6개항 공동 합의문 채택

호남과 충청지역 7개 시·도지사가 호남고속철도 편수를 수요 증가에 걸맞게 증편하고, 광주송정~목포 간 2단계사업의 기본계획을 나주·무안공항 경유 노선으로 변경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7개 시·도지사는 26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호남고속철도 증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6개 항의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호남과 충청이 상생협력을 통해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양 지역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을 천명했다. 또 공동합의문에 최근 논란이 된 호남고속철도 계획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양 지역의 활발한 교류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합의 내용은 ▲호남고속철도 운행계획에서 서대전~호남 구간 연계가 단절된 것은 두 지역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을 위해 보완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 호남고속철도를 수요 증가에 걸맞게 증편하고, 서대전 경유 고속철도 및 전

라선 고속철도 증편에 공동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 ▲서대전 경유 고속철도 노선 중 서대전~익산 구간 직선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계획 변경(나주·무안공항 경유) 및 조기 건설, 서해안축 철도(인천~홍성~새만금~목포) 조기 건설, 호남고속철도 우회구간에 대한 정부의 요금 인하 약속 이행 촉구 ▲장기적으로 호남고속철도를 충청~원주~강릉 간 철도망과 연계 운행하는 데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호남선을 향후 충청·강원권으로 연장하는 한편 중국횡단철도(TCR)·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계 운영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양 지역의 상생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 관심사항과 숙원·핵심사업에 대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호남과 충청 7개 시·도지사는 이번 연석회의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호남과 충청의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이번엔 김무성의 '호남총리론' 선거득표·민심수습 일석이조?

광주 서울 지원유세중 깜짝 제안 朴대통령 후임 인선 수용여부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후임 총리 인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호남 총리론'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박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귀국 즉시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 자연스레 후임 총리 발탁 기준에 초점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성완종 파문'으로 국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무총리 인사를 통해서 민심을 다독이고 정국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데는 여권 핵심부의 인식은 일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터진 '호남 총리론'으로 여론은 술렁거리고 있다.

'호남총리론'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재·보궐 선거 지원유세 연설이 발단이 됐다. 김 대표는 지난 23일 광주 서울 유세 중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이 총리가 경질되면 그 다음에 전라도 사람을 한명 총리로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며 "이정현 최고위원이 총리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나. 또 정승 후보가 이번 선거에 당선돼 최고위원이 되어 총리를 한다면 얼마나 일을 잘하겠나"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25일 성남 유세 후에도 기자들을 만나 차기 총리 인선에 대해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민대통합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국민대통합을 시킬 수 있는 총리를 바란다"고 말하며 우회적으로 '호남총리론'을 강조했다.

재보선을 앞둔 상황이라고 하지만 김 대표의 거둔 '호남총리론'은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완종 사태'이후 여권의 위기 상황에서 전면에서 국면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 김 대표의 '비중'과 '역할'을 고려할 때 단순한 선거용 발언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호남총리론'은 총리 인선 때마다 거론됐다.

박 대통령이 호남총리를 고려할 경우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전주),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군산), 한광욱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장(전주)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과거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했던 김황식(장성), 한덕수 전 총리(전주)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그러나 '호남총리론'은 다른 지역에 대한 역사적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런 상황이다. 실제로 충청권 여당 의원들은 내년 총선 지역 민심을 의식, '충청 총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역을 불문하고 능력 위주로 가야 한다며 이른바 '탈(脫)지역 총리'를 주장하는 기류도 상당하다.

더불어 당내 쇄신·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계층·세대·지역 간에 진정한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색이 얽은 수도권 출신의 총리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17년 연속 (1999~2015) 가정용보일러 브랜드 파워 1위 www.krb.co.kr

집이 다르면 보일러도 달라야 한다

보일러는 역시 귀뚜라미보일러

도심 아파트에는..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가스비를 절감하는 거꾸로 콘덴싱 가스보일러

농어촌 주택에는.. 화목연료의 고효율을 실현하여 화목을 아껴쓸 수 있는 거꾸로 타는 화목보일러

대형 빌라나 주택에는.. 욕실 3곳에서 풍부한 온수 사용이 가능한 미국으로 수출하는 온수탱크 내장형 거꾸로 콘덴싱 가스보일러

전원주택, 펜션에는.. 신재생에너지로 연료비 절약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귀뚜라미 펠릿 보일러

1588-9000 Kiturami